

체불·산재·불법고용 전방위 점검 10개 종합건설사 ‘통합감독’ 착수

고용부, 취약현장 노동권 점검

하도급 불공정 관행 실태 조사
50억 이상 대형 현장까지 확대
외국인 불법고용도 단속 대상
관계부처 협업 통해 구조 개선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장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기업 관세대응 역량 강화 나선다

산업부·코트라, 바우처 행사 개최 통상피해 분석·시장정보 종합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시장 진출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운영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 르웨스트홀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코트라

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공유됐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 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 체험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에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기평, ‘대구·경북’ AI·SW 인재 육성

경북대·대구대·경북연구원과 협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9일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지역의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AI시대를 맞아 대구·경북 지역산업 고도화와 미래 첨단

기술 기반 형성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인력양성·연구성과 공유 등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KEIT는 2015년부터 AI분야자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공정자동화·품질관리·예측 정비스마트 로봇 등 제조 현장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 의료·복지·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간 융합 촉진을 지원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AI·SW분야 연구성과 및 콘텐츠 공유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 교환 및 활용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협업 ▲시설·장비 등 인프라 상호 활용 ▲기타 AI·SW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문중 KEIT 원장은 “AI·SW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재의 핵심기반”이라며 “대구·경북이 AI·SW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폭염 속 기습폭우 대비 하천 현장점검

환경부, 근로자 안전도 등 강조

환경부가 폭염 속 여름철 침수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9일 금한승 차관이 청주 미호강 강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 및 청원구 일대의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 차관이 점검한 미호천 강의 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천 폭을 늘리는 사업이다.

미호강은 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범람해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덮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가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으로 미호강의 신설 제방을 축조하고 기존 제방을 철거해 미호

강과 합류부의 하폭이 확대되면 홍수위가 최대 0.63m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금 차관은 펌프장의 운영을 살피고,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등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추락방지시설의 빠른 설치를 주문할 예정이다.

또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 차관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부터 작은 빗물받이와 맨홀 하나하나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길 튼다

‘UN전문가 초청’ 실무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 플랫폼(UNG)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검역본부, 꿀벌 보호 공동연구 성과 공유

5개 부처 기후변화 대응 중간 발표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개체수 급감 대응의 일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서울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

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 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중점 추진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을 핵심 임무로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개발 ▲꿀벌 스트레스 지표발굴 및 관리기술 연구 ▲꿀벌 봉군소실 및 행동이상에 대한 꿀벌응애와 관련된 바이러스 영향 조사 등을 발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